

〈사설(社說)〉 오늘은 학생부 결성 65주년

2022년 6월 30일

‘연결’의 가치를 바라볼 때

‘Z세대’ –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태어나 철들 때부터 인터넷과 SNS(교류 사이트)가 발달한 환경에서 자란 세대를 말한다. 바로 지금의 대학생이 바로 이 Z세대에 해당한다.

SNS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넓게 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순식간에 얻을 수 있다. 반면 상대의 표정이나 감정이 보이지 않아 깊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 재작년 갑자기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재난은 SNS가 가까운 젊은이들에게 ‘연결’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코로나 재난으로 수업이 온라인화되면서 캠퍼스 친구들과의 관계가 현저히 감소했다. ‘리얼’에서 만날 기회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자신도 현역 학생인 NPO법인 ‘당신의 이바쇼(居場所, 거처, 있을 곳)’ 이사장 오오조라 코우키(大空幸星) 씨는, ‘원하지 않는 고독’을 없애는 열쇠는 ‘다양한 연결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할 필요는 없고, 연(縁)이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소카신보(創價新報)」 6월 15일 자>)라고 말한다. 인간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리얼이든, 온라인이든 그려한 지탱하고, 지탱 받는 ‘연결’ 자체가, 살아가는 활력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한 남학생부 벗은 미국 유학을 목표로 대학에 진학해 노력 끝에 교환유학을 쟁취했다. 하지만 코로나 재난으로 오랜 목표였던 유학이 중단됐다. 실의의 밑바닥에 있던 그를 학생부(學生部)의 동지들이 계속 격려해 주었다. 고민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주는 벗의 존재가 앞을 내다보는 힘이 됐다고 말하는 그는 학생부 리더로서 이번에는 격려하는 편에 서서 교육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이케다 선생님은 엮었다.

“사람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 이외의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자,라는 ‘인간의 유대’가 아닐까.”

오늘 6월 30일은 학생부 결성 65주년. 지금 남녀 학생부의 벗은 연(緣)이 있는 벗에게 격려의 소리를 보내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 구축을 향하여 정의의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 그 성실한 도전 속에서 광선유포(廣宣流布) · 입정안국(立正安國)이라는 인간공화(人間共和)의 이상(理想)은 빛난다. 누구 하나 방치하지 않는 ‘연결’을 더한층 넓혀 가는, 선구(先驅)인 학생부의 사명은 더욱더 크다.

〈사설(社說)〉 ‘오사카사건’으로부터 65년

2022년 7월 2일

‘사제(師弟)의 7월’에 정의(正義)의 진열(陣列)을

이케다(池田) 선생님이 사실무근의 선거위반 용의로 체포된 1957년 7월의 ‘오사카사건(大阪事件)’으로부터 올해로 65년. 당시 참의원(參議院) 보궐선거에서 일부 회원이 저지른 선거위반을 이케다 선생님에게 억지로 연결시켜 약진(躍進)하는 창가학회(創價學會)를 모함(謀陷)하려는 권력의 책모(策謀)야말로 사건의 본질이었다.

이해 6월, 홋카이도(北海道)에서는 유바리탄로사건(夕張炭勞事件)이 발발(勃發). 이케다 선생님은 탄노(炭勞)와의 공방을 진두지휘한 뒤, 7월 3일 오사카(大阪)로 향했다. ‘삼류강적(三類強敵)’과의 싸움의 장절함을 아는 도다 조세이(戸田城聖) 선생님은 환승하는 하네다(羽田) 공항에서 이케다 선생님을 맞이해 “광선유포(廣宣流布)는, 현실 사회에서의 격투(格闘)다. 어떠한 난(難)이 다투어 일어나도 싸우는 이 외에 없다.”라고 말했다.

전시(戰時) 중, 군부권력(軍部權力)에 대해 옥중투쟁(獄中鬪爭)을 관철한 초대 ·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郎) 선생님은 순교(殉教). 도다(戸田) 선생님은 1945년 7월 3일, 살아서 출옥했다. 생사(生死)를 넘어 맺어진 ‘사제(師弟)의 유대’ 야말로 창가삼대(創價三代)를 관통하는 혼(魂)이다.

이케다 선생님이 옥중에 있던 7월 12일, 비열(卑劣)한 권력의 횡포에 항의(抗議)하기 위해 도쿄의 구라마에국기관(蔵前国技館)에 4만의 동지가 모여 도다 선생님의 슬하

에서 ‘불꽃의 도쿄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이케다 선생님이 석방된 17일, 오사카 나카노시마(中之島)의 중앙공회당에서 열린 오사카대회. 모인 2만 벗은 폭풍과 천둥소리 속에서 최후에는 신심(信心)을 관철한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는 선생님의 외침을 생명에 각인. 정의의 불꽃을 태우고 준엄한 사제에 이어지는 투쟁을 관철해 ‘상승(常勝)의 대간사이(大關西)’를 구축해 온 것이다.

오사카사건의 재판은 4년 반에 이르렀다. 판결 전날 밤, 이케다 선생님은 효고(兵庫) · 아마가사키시(尼崎市) 체육회관에서 열린 회합에서 민중을 괴롭히는 권력을 규탄. 종료 후, 청년들에게 심경을 밝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길러 성장하는 것이다! 많은 벗을 사귀고 정의의 진열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광선유포의 싸움에서 승리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오사카대회 당시 고등학생이던 효고 · 이타미(伊丹)의 금보회(錦寶會) 벗은 뇌우 속에서 맹세한 그날의 뜻 그대로 지역 광포에 힘써 왔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2주를 생각하면 넘지 못할 게 없었습니다.” 대화를 이어오던 고등학교 동창이 최근 입회해 지금 함께 우호의 유대를 크게 넓히고 있다.

내일은 ‘7 · 3’. 그리고 ‘7 · 17’ 오사카대회 65주년을 맞는다. 지금 이때,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불태워 스승과 함께 싸워 나아가는 하루하루를!

오늘은 남자부 결성 기념일

2022년 7월 11일

8 · 9월을 중심으로 대학교생대회를 개최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사자후(師子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라! 도쿄(23개 구) 남자부 벗이 맹세에 불타. (5월 도쿄도다기념강당에서)

정의의 사자(師子)가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용감하게 일어선다! 오늘 7 · 11 ‘남자부 결성 기념일’을 맞았다.

1951년 7월 11일, 도쿄(東京) · 니시칸다(西神田)의 구(舊) 학회본부에서 열린 남자부 결성식의 석상에서, 도다 조세이(戸田城聖) 선생님은 말했다. “광선유포(廣宣流布)는 내가 절대 성취해야 할 사명이며 각자가 그 존귀한 지위(地位)를 자각해 주었으면 한다.”

이날 반장으로 참석한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선생님은 은사(恩師)의 외침을 생명에 새겼다. 훗날 당시의 진정(眞情)을 엮었다.

“청년이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청년이 스승과 같은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청년이 스승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하여 솔선(率先)해 원대한 미래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다.”

선생님은 스승의 구상 실현에 맹연(猛然)히 홀로 섰다. 그리고 온갖 험난한 봉우리를 승리로 넘어 광포(廣布) 확대의 금자탑(金字塔)을 박아 세워갔던 것이다.

스승의 대원(大願)을 계승한 제자의 투쟁으로 승리의 증거를 나타낸다. – 이것이 남자부의 영예로운 사명(使命)임에 틀림없다.

지금 혼미(混迷)한 어둠을 헤치는 생명존엄(生命尊嚴)의 철리(哲理)를 내걸고 용기의 언론전을 펼치는 남자부 벗. 그 선구(先驅)를 끊고 있는 것이 남자부 대학교생이다.

이번 8·9월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대학교생대회’가 열리는 것이 결정되었다. 올해 8월 24일은 이케다 선생님의 입신 75주년 가절(佳節)이다. 구도(求道)의 마음이 불타는 5기생을 선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여름의 결승점을 목표로 하여 홍교(弘敎) 확대에 도전해 간다.

니시가타(西方) 남자부장은 맹세한다.

“홀로 서는 제자의 진열(陣列)을 거듭 넓혀 새로운 광포 비약의 역사를 승리로 열겠습니다!”

〈사설(社說)〉 오늘은 ‘남자부 결성 기념일’

2022년 7월 11일

광포(廣布)의 뜰에서 살아가는 증거를

코로나 재난 속에서 사회 상황은 급변하여 뉴노멀(새로운 보통)이라는 말도 퍼졌다.

그러나 독립 연구자·저작가인 야마구치 쥬(山口周) 씨는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은 『노멀=보통(普通)이 용해(溶解, 녹다)되어 버린 세계』”(『사고의 컴퍼스』 PHP연구소)라고 지적한다. 즉 ‘보통’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노노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간다고.

코로나 재난은 일하는 방식과 생활스타일, 삶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종래의 모델케이스가 없어져,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보통’이 사라져간다면 각각의 복잡한 상황에 있어서 그 사람답게 결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 때에야말로 ‘한 사람을 소중히 한다’는 시점이 중요해질 것이다.

남자부 벗은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서 철저히 한 사람을 소중히 해왔다. 코로나 재난 초기, 온라인을 활용해 격려를 넓혔고 현재는 부원의 방문·격려, 우인과의 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는 일하면서 새로운 전망을 품고 공부를 거듭하는 벗이 있다. 아빠로서 육아에 전력으로 임하면서 학회활동(學會活動)에 달리는 멤버도 있다. 때로는 젊은 세대가 직면한 과제를 서로 이야기하며 때로는 벗의 고민에 다가선다. 학회활동이란 ‘눈앞의 한 사람’과 진지하게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꾸준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남자부의 사명이다.

부(部)의 결성식이 열린 1951년 7월 11일, 도다 선생님은 참석한 벗에게 말했다. “가까이는 메이지(明治)의 혁명을 보더라도 그 원동력이 된 것은 당시의 청년이었고, 멀리는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의 어재세(御在世) 때도 활약한 제자 분들은 모두 청년이었다. 항상 청년이 시대를 움직이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부는 압도적인 대화 확대에 도전하며 열투(熱鬪)를 펼쳐왔다. 고투와 도전의 날들이 자기 자신의 역사에 새겨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케다 선생님은 말했다.

“일단 광포(廣布) 싸움의 뜰에 섰다면, ‘나는 이만큼 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결과를 염연히 보여 가는 것이다. ‘이만큼의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살아 있는 증거를 남겨 가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학회 남자부다.”

오늘은 남자부 결성 기념일. 한 사람 한 사람이 광포후계(廣布後繼)의 맹세를 가슴에 품고 평화와 우정을 넓혀 나가자.